

# 사이 흠백쇼 '서머 스웨그 2022'

최근 '정치적 올바름' 갑론을박된 공연  
'흠백쇼' 공연업계 가뭄 해결 선봉장 나서



"니네들도 똑바로 뛰어!"  
영상 속 배우 마동석이 9일 오후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운집한 약 3만 관객을 향해 경고(?)하면서, 가수 겸 프로듀서 사이(PSY)의 흠백쇼 '서머 스웨그(SUMMER SWAG) 2022'가 문을 열었다.  
이날 콘서트 오프닝 영상에서 트레이너로 변신한 마동석은 사이를 향해 "오래하다 보니까, 네가 (공연을) 잘하는 거 같다"라며 그를 끊임없이 혼란시켰다.  
그리고 6시58분경 무대 밑에서 대기 중인 사이가 "3년 만입니다. 진짜, 떨린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라잇 나우'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시원한 물줄기가 포물선을 그리자, 스탠딩석은 물론 지정석까지 흠백 적었다. 사이는 이렇게 외쳤다. "인천 날씨 끝내준다." 이후 '연예인' '어떻게' '흔들어주세요' 등 히트곡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흠백쇼는 사이의 대표 공연 브랜드. 여름마다 열광 속에 매년 행렬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번엔 열리기 한달 전부터 갑론을박이 따랐다. 봄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회당 300톤가량(올해 '흠백쇼' 전국투어는 9회 예정)의 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이 논쟁의 시작조차 사이에게 역을 한 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이의 흠백쇼보다 전국의 골프장, 워터파크가 더 많은 물을 사용한다. 게다가 사이의 흠백쇼는 장마철과 폭염이 찾아오는 시기에 걸쳐 열린다. 가뭄이 심한 봄·가을과 연관이 없다. 공연을 직접 보고 있으면 물기둥을 아낌 없이 쏜다는 생각은 들지만, 연출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게다가 '흠백쇼'에 사용되는 물은 식수다. 식수의 수원과 농업용수의 수원은 대체로 따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물이 부족할 때는 사이가 '흠백쇼' 전국 투

어에서 사용하는 물도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걸 가뭄지역에 전달한다고 해도 수십만 톤의 저수지를 끼고 있는 농촌의 가뭄 해결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셈이다. 농업인들 역시 축제에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지적보다, 지역에 가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국가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그런데 사이의 콘서트가 공연업계 가뭄을 해결해주고 있다. 흠백쇼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리게 됐다. 콘서트는 사이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소속사 피네이션 식구들은 물론 콘서트업체 관계자, 장비 대여 관계자, 경호업체 관계자 그리고 공연장 인근 식당 관계자들이 공생하는 구조다. 이날 밤 늦게까지 문을 열어둔 고깃집 관계자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많이 먹어서 좋다"고 했다.  
파악한 일상을 살아가는 관객들의 삶에도 습기를 채워줬다. 흠백쇼의 드레스 코드인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온 30대 초반의 커플은 "날씨도 무덥고 일도 힘들어 불가뭉처럼 마음이 답답했는데 오늘 만큼은 땀 뿜린 거 같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흠백쇼'는 공연 도중 뿌린 물로 인해 젖은 마스크가 세균 번식 등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직면했는데, 이는 방수용을 포함 마스크 4장을 제공해 계속 교체할 수 있게끔 해서 대비했다.  
다만 가뭄과 관련 사이에게 도의적인 사회적 책임감은 물을 수 있다. 그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스타인 만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말이다. 골프장이나 워터파크 관계자보다 목소리를 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 대한 지향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이가 이미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앞장서 응원전에 참여했고, 2012년 '강남스타일'로 글로벌 열풍을 일으킬 때 10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무료 공연을 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이고 연대감을 안겨줬다. 영국 국적 등 다수의 외국인들도 이번 '흠백쇼' 공연장을 찾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언급하면서 더 좋은 공연을 위해 도의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하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다.  
K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즐거움·연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가 월드투어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관객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땀 때 생기는 운동량으로 전력을 구동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추후 '흠백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4시간 가량 열린 이번 콘서트는 '공연장인'인 사이의 무대 답게 다 같이 즐기는 콘서트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 관객을 취약피해하는 쇼맨십은 여전했고, 10~50대 관객을 아우르는 매너도 일품이었다.

초호화 게스트 라인업도 여전히 이날엔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가수 제시가 힘을 실었다. 특히 제시는 최근 사이가 이끄는 소속사 피네이션과 계약이 만료된 뒤 온라인에서 무뎠던 제시를 사이와 여전히 돈독한 의리를 과시했다. "피네이션과 사이 오빠 많이 사랑해주세요"라고 공연 내내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대가 끝난 뒤 무대 한켠에서 두 사람은 인증 사진을 찍었고 사이는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고마워"라고 했다. 또 온라인에선 최근 사이가 낸 9집 '싸다구'의 타이틀곡 '땀뭉'을 공동 프로듀싱한 방탄소년단 슈가가 추후 공연에서 게스트로 나올 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사이는 이번 콘서트에서도 자신이 존경하는 뮤지션 신해철(1968~2014)에 대한 헌사를 계속 이어갔다. 신해철에 대한 헌정곡 '드림(DREAM)'을 부를 때 물기둥으로 대형 물스크린을 만들어 신해철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이의 흠백쇼 티켓은 매년 단숨에 매진되고, 이후엔 양표(매매는 지양해야 하지만) 전쟁도 벌어진다. 그 만큼 불가치가 있다. '싸이 흠백쇼 2022'는 오는 15·16·1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23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30일 강릉 종합운동장, 8월6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 13·14일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20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강릉과 여수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문화' 가뭄 지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짠 일정표다.

# 허경환 회삿돈 27억 횡령·1억 빌려 유흥비

회삿돈 인출해 다른 계좌로 이체 혐의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법인세 등 납부를 빚지해 허씨에게 1억원을 빌려 유흥비 등에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허씨는 "돈 빌면 그때 갚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양씨가 허담의 회계와 다른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해 관리·운영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횡령금액이 27억원을 넘고 잔존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양씨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가 피해회사의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했고, 이 사건 범행은 양씨의 사기죄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양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 제이홉·정국, 英 싱글차트 70위·48위

팀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 앨범차트 100위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챗터2를 열고 개별 음악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솔로곡과 협업곡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8일(현지시간) 오피셜 차트에 따르면, 제이홉이 지난 1일(이하 한국시간) 발표한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 선공개곡 '모어'가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최신 차트(7월 8~14일)에서 70위로 데뷔했다.  
'모어'는 상자 안에서 제이홉이 느끼는 솔직한 이야기를 다루는 올드스쿨 힙합 장르의 곡이다. 제이홉이 오는 15일 공개하는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에서 '방화'와 함께 더블 타이틀 곡이다.  
푸스와 정국이 지난달 24일 발매한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이번 주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48위를 기록했다. 지난 주 41위보다 7계단 떨어졌으나 2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다.  
'레프트 앤드 라이트'는 올해 하반기 발매 예정인 푸스의 정규 3집 '찰리(Charlie)'의 수록곡이다. '라잇 스위치(Light Switch)', '댓 힐러리어스(That's Hilarious)'에 이어 선공개되는 세 번째 싱글이다. 푸스와 정국이 이 곡으로 4년 만에 호흡을 맞췄다.  
한편,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Proof)'는 이번 주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100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91위보다 9계단 하락했으나 해당 차트에 4주 연속 진입했다.

# 김희재 소속사·공연기획사, 콘서트 취소에도 이진투구 계속



가수 김희재 콘서트가 취소된 이후에도 소

모코.ent, 김희재 콘서트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

속사 스카이어엔터테인먼트 공연 기획사 모코.ent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어엔은 9일 팬카페에 "12일 간 소속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모코.ent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코.ent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입금액은 아직도 완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7월 예정이었던 첫 합주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연기획사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개런티 지급을 기일내에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코.ent 측에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모코.ent는 이날 반박 입장을 내 "김희재의 콘서트 출연료 8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완료했다. 스카이어엔이 주장하는 '미지급'은 부가세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코.ent가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달라고 보낸 공문과 메시지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금액을 빠르게 원상복귀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카이어엔은 지난 1일 김희재 팬카페에 콘서트 취소를 한 결정적인 이유로 모코.ent의 출연료 미지급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출연료가 계약서상 기한까지 미지급된 상황에서 모코.ent가 임의로 티켓 판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24일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반면 모코.ent는 총 3회분의 출연료(7월 9·10·23일 공연분)를 지난 1일에 스카이어엔 측에 미리 선지급했다며,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 에스파, '내 옷 네 옷' 없는 공용 옷장 공개



그룹 에스파의 일상이 MBC TV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됐다.  
9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는 에스파가 새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이 담겼다. 먼저 에스파와 이승희 매니저가 함께 지내고 있는 숙소가 최초 공개됐다. 깔끔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멤버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옷장이 관심을 끌었다.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서로 옷을 빌려 입기 시작하면서 이제 는 자연스럽게 같이 입기 시작했다고 했다.

에스파는 지난 8일 내놓은 신곡 '걸스' 스테이지 영상 촬영도 했다. 메이크업을 마친 에스파는 촬영장으로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순대·어묵 등을 함께 먹었다.  
또 최근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만약에 게임'을 하기도 했다.  
촬영장에 도착한 에스파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에 맞춰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에스파의 신곡을 접한 게스트들은 즉석에서 포인트 안무인 '윈총 춤'에 도전하기도 했다. 가수 송가인은 '걸스'의 후렴구를 트로트 버전으로 보여줬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전지적 참견 시점' 시청률은 전국 기준 4.0%, 수도권 기준 4.4%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였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5.9%, 2049 시청률은 2.4%로 같은 시간대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중 1위였다.